



“ 빈약한 자의 강한 애소(哀訴) ”

■ 이종윤 원로목사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시41:1) 즉 가난과 복을 연결시키고 있다. 물질적 가난을 말씀한 것인가?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 5:3)라고 하심으로 여기서 가난은 물질적 가난만이 아니고, 신체적으로 병약한 자, 마음이 빈약한 자, 사회적 위치가 미약한 자, 하나님의 징계 아래 고난을 당하는 자를 가리킨신 것이다. 이런 자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빈약한 자들을 외면하고 경멸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빈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자비를 베푸는 자들을 지켜보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신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다. 시편 41편에 의하면 재앙의 날에 그를 지켜 주신다 했다. 그의 생명이 보호를 받고 세상에서 잘되게 하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 그리고 병들어 늙게 되더라도 고쳐 주시고 일어나게 하신다. 궁핍히 여기는 자는 궁핍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교만하여 마음이 부한 자가 아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 파산자(Spiritually bankrupt)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은 죄와 부패로 더러워진 존재임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인식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인간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만 칭의를 얻을 수 있다는 교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자력으로는 산상보호의 말씀을 이룰 수 없음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여 주셔야 한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 위에서 받는 동안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대신 섬기며 노래했다. 이처럼 십계명 즉 하나님의 의의 표준은 죄인 된 인간에 의해 성취될 수 없음이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이미 밝히 나타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회개 자복하는 이에게는 희생제물을 바칠 때 죄를 용서하시거니와 자기 의를 자랑하고 율법을 불순종하는 이에게는 율법의 높은 기준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께서도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를 위선이라 책망하시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다. 다윗은 「나를 잊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용하게 하소서」(시 41:10)라는 즉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사상과는 배치되는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워 주신 왕으로서 다윗은 원수를 멸할 힘을 달라는 통치자의 책임을 하는 기도를 한다. 병중에서도 모독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본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면 오히려 율법은 인간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간은 말씀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친 이들만이 율법을 성취시킬 수가 있다. 중생치 못한 이들 즉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속에 없는 이들에게 산상보호를 말씀하는 것은 이리와 양이 한 구유에서 먹는다는 이사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듭난 새로운 성품이 먼저 요구될 때 실현될 수가 있다. 우리 삶 속에 채우기 전 먼저 비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전 영적으로 먼저 가난해져야 한다. 새 술을 붓기 전에 옛 술을 부대로부터 버려야 한다. 패한 후 초하게 되고(눅 2:34) 채우려면 먼저 비우라는 것이다. 회심 전 회개를, 구원 받기 전 하나님 면전에서 무가치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한다. 빈 그릇을 준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당신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산상보호의 말씀의 수준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불가능한 일이다.

거룩하시고 의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타인을 바라보면서 또는 다른 사람 안에서 심령의 가난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인간의 심령은 만물보다 부패했기 때문이다. 타인과 비교해서 나는 좀 낫다 하는 이가 있으나 그리스도보다 더 완전한 이는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자비와 구원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비로소 겸손해지고 필요를 깨닫게 되고, 그 결과가 복될 것이다. 우리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한 이사야처럼 고백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음으로 당신 자신에 관해 잊어버리고, 자신을 작고 더러운 존재로 보고 자신의 관심에 관해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때 산상보호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보게 될 것이고 그에게 점점 더 가까이 가도록 애소(哀訴)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4월의 첫 주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더욱 경건한 영적 예배와 삶의 열매를 위해 애쓸 때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사순절공동기도문 : <http://www.seoulchurch.or.kr/upload/Lent.jpg>
 예배당에서는 꼭 스티커가 있는 자리를 확인한 후 앉으시고, 대화 시에는 상호 간에 거리를 유지하며,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로 대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 연습이나 각 부서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침, 발열 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확산세가 다소 진정될 때까지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403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 of on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근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해경,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해(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경, 우상식 · 김정욱(인도), 서광중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누(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으니 ”

■ 창 26:12-22
 성경에서 붉은 희망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광야 곳곳에서 초록의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노란 꽃들이 만개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속 10:1) 붉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품고 꿈꾸며 기도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희망의 사람을 만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이어 족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부족의 생사를 책임진 자리에 섰습니다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26:1) 가나안의 흉년은 무서웠습니다. 가족들의 생존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희망을 품고 인내하며 극복해 나갑니다.

1. 희망의 근원-하나님의 언약
 흉년이 찾아오자 이삭의 가족이 찾아간 곳이 그랄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마치 호랑이굴로 들어간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태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고 평화로울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삭이 어려움에 처해도 허둥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측 못할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희망을 품고 씨앗을 뿌리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합시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2. 새로운에 도전하다
 이삭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문화와 농경문화는 큰 차이가 있었고 유목민이 농사하는 것은 매우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새로운에 도전하여 성공했습니다.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이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가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우물을 빼앗고 메워 버리는 일이 네 차례나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팎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와는 내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시 118:6)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때 보이지 않는 열매들을 믿음으로 봅니다. 새로운 도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믿음으로 대응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3. 평화를 누리다
 아비멜렉 왕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이삭에게로 찾아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화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주저 없이 화평조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결코 이삭에게 선한 일만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이 농사지어 성공하자 즉시 자기 땅에서 이삭을 추방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의 백성들은 이삭의 우물을 메꾸는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삭도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과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에서 보는 것은 온유함, 비폭력, 관용 등의 자세입니다. 이런 모습이 신앙인의 참된 영향력이며 진정한 르호봇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력해 보이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의 온유하심, 관용, 거룩하신 희생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을 바라보는 이 계절에 믿음과 비전을 품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관용과 사랑의 씨앗들을 심읍시다. 지경을 넓히시고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할 것을 믿읍시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동수 목사	안인호 장로
II 오전 11시	장석남 목사	박정선 장로
III 오후 2시	김익환 목사	김익환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히 10:19-20,2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4(4)...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8(사순절5)...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79(40)...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창 26:12-22...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으니”...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459(514)...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34:8-9 인 도 자
 찬 송 35(50) 다 합 께
 기 도 장윤식 집사
 찬 송 419(478) 다 합 께
 성 경 행 19:8-20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 설 교 자
 * 찬 송 546(399)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 인도: 전재홍 목사
 II부 오후 7시 ·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김정애 권사 II부: 이영애4 권사
 성 경 행 19:21-4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혼동을 다스리시는 성령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연·박수강·김복희2
 설 교 손달익, 김익환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 모 임
- 1. 스테반 월례회 / 3일(주일) 오후 1시 502호
- 2. 정기당회 / 6일(수) 수요일 2부 예배 후 402호
- ☛ 알 림
-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12. 금일 세례식 문답 실시 - 금년도 첫번째 세례식인 4월 세례(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4월 10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로서 문답참원서를 작성 제출하신 분을 위한 교육 및 문답 실시
- 세례 교육 : 4월 3일(주일) 각 교회학교
- 세례 문답 : 4월 3일(주일) 오후 2시 609호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 13. 이번주 심방 일정
1-8, 1-9, 2-2, 3-5다락방
- ☛ 장 례
- 1. 故 전분순 집사(9교구 김미자 권사의 모친, 박희서 집사의 장모) / 3월27일 별세, 3월29일(화) 발인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교회학교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수요일부 예배 녹화 방송
-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646명	582명	2,228명	479명	1,913명

말은 자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다. 국가, 민족, 사회를 이끌고 있는 공직자로부터 모든 국민은 자기 말은 일에 충성을 해야 한다. 그러나 충성을 열심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자기에게 요구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제 뜻이 아닌 주인의 뜻을 실행하는 충직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말은 자는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50층짜리 건물을 지을 줄 아는 이가 쓰레기통에 휴지 한장을 바로 넣을 줄 모른다거나 어떤 일을 맡았는데 그 다음엔 함흥차사가 되었다면 신뢰할 만한 일꾼이 될 수는 없다.

참된 일꾼은 일의 대가나 사욕을 채우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헌신과 희생이 있는 봉사자다.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질서와 겸손이 몸에 밴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자.

-이종운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